

‘자체 칩’으로 脫인텔… 애플, 맥북에어·맥미니 공개

‘M1’ 탑재 신제품 공개
소프트웨어 속도 개선
무게 낮추고 크기 줄여
부트캠프 미지원 단점

데스크톱과 노트북용 ‘애플 실리콘’이 공개됐다. 이름은 ‘M1’이다. 제품 성능을 개선하면서 판매량 증가 및 수익성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 ‘원 모어 씽’을 개최했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세계에 중계했다.

이날 주인공은 새로운 시스템온칩(SoC)인 M1이었다. 앞으로 맥북 등 노트북과 아이맥 등 데스크톱에 사용될 제품이다.

애플은 종전까지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휴대기기에는 자체 개발한 A시리즈 칩을 사용해왔다. 노트북과 데스크톱에서는 IBM 파워PC를 거쳐 인텔 x86 CPU를 써오다가 결국 자체 개발한 칩을 개발하게 됐다.

M1은 A시리즈와 같이 영국 암(ARM)사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



애플 M1은 맥OS 전용 툴에서 빠른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8코어CPU와 8코어GPU, 16코어 뉴럴엔진에 D램까지 품었다. TSMC 5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드웨어 크기를 최소화한 덕분에 제품 무게를 낮추고 크기를 줄이는게 가능해진다. 미세 공정을 통해 전력 소모도 최소화하고, 별열 문제도 해결했다. 실제로 애플은 새 맥북에어에 CPU 팬을 없애 소음을 최소화했다. 완전 충전시 웹서핑 15시간, 동영상 재생 18시간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대대적인 성능 개선이 이뤄지면서 다시 전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제품별로 종전보다 CPU가 최대 3.5배, GPU가 최대 6배, 머신러닝 연산이 최대 11배 빨라졌다는 게 애플 설명이다. 다소 과장된 수치일 가능성은 높지만, 자체 프로세서를 쓰게된 만큼 로직 프로나 파이널 컷 등 맥 전용 툴 작동 속도만큼은 크게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다.

맥OS는 ‘빅서’로 판올림(버전 업그레이드)한다. M1 전용이지만, 일단은 구형 모델도 지원하면서 호환성 문제를



애플이 새로 개발한 M1. /애플

일단 해결한 상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한동안은 모두 호환되는 쪽으로 지원하면서, ‘개발자 전환 키트 맥 미니(DTK)’를 공급해 M1용으로의 전환을 돋는다.

가격도 합리적인 선으로 책정했다. 맥북에어가 999달러, 맥미니가 699달러, 맥북 프로가 1299달러다. 이전작과 큰 차이가 없다.

단점은 부트캠프 미지원이다. 종전 까지는 x86 프로세서를 쓰는 덕분에 부트캠프로 윈도까지 완벽하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서피스에 윈도를 탑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가 있다. 일단 애플은 x86 CPU로 개발된 앱을 M1에서 구동하게 해주는 로제타2라는 프

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예전 모델과 같이 완벽하기 지원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팀 쿡 애플 CEO는 “M1칩은 우리가 창조한 가장 강력한 칩”이라며 “우리가 맥을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맥까지 자체 칩을 도입하면서 인텔 독점 체제는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이다. 이미 데스크톱 시장에서는 AMD에 점유율을 빠르게 빼앗기는 모습, MS 서피스와 삼성전자 갤럭시북S에 이어 맥북까지 ARM 기반 CPU를 탑재하면서 노트북 시장에서도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서버 시장에서도 AMD가 애플을 앞세워 인텔 자리를 노리는 가운데, ARM까지 프로젝트 카시니를 공개하며 공략 강화를 선언했다.

삼성전자에는 호재라는 평가다. AR M 기반 프로세서는 대부분 텁스리로 만들어져 위탁 생산이 필수, 파운드리 시장이 대폭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 1위인 대만 TSMC가 최근 주문 폭주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LG 롤러블 TV’ 강남 편집숍서 만나세요”

‘더콘란샵’ 1년 기념 체험공간 마련
명품 가구 등과 라이프스타일 제안

편집숍 더콘란샵이 롤러블 TV를 직접 볼 기회를 마련했다.

LG전자는 더콘란샵에 LG 시그니처 올레드R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더콘란샵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 개점 1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자동차와 IT, 패션 등 분야 유명 브랜드와 협업한 그래픽 디자이너 사샤 로베가 동참했다.

더콘란샵은 300개 리빙 브랜드가 입점했으며, 지난해 처음 개점해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한 가전과 가구 등 차별화된 디자인 상품을 출시해왔다. 복합



더콘란샵에 전시된 롤러블 TV.

문화공간으로도 알려져있다.

더콘란샵은 이달 말까지 매장 내 VIP 공간에서 롤러블 TV를 전시한다. 올레드 R 뿐 아니라 명품 가구와 조명 등 최고급 상품들을 조화롭게 연출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한다. /김재웅 기자

더콘란샵 외에도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 매장뿐 아니라 강남대로에 위치한 LG유플러스의 복합문화공간 ‘일상 비일상의 틈’,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타워’ 등에서도 LG 시그니처 올레드 R 체험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우수 中企 상생협력 장 마련

24일까지 온라인서 기술박람회
80곳 참여… 전시·시상식 등 진행

현대제철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현대제철은 우수 기술 도입 및 중소 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2020 현대제철 기술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이날 개회식 환영사에서 “기술박람회는 혁신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국산화·개선품·대체재 개발 등 다방면의 개선 활동을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을 함

께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자”고 말했다.

올해로 5회째인 기술박람회에는 총 80개 업체가 참여해 3D로 모델링된 가상공간에서 전용 부스를 설치했다. 제선·전기로·열연 및 후판·냉연·미래기술로 나눠 국산화·품질·생산성·환경·안전·에너지 등의 테마로 제품을 전시했다. 기술세미나, 구매제도 설명회, 미래 기술 전시관, 시상식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에는 친환경 우수 제안(코웨이 엔텍) 및 친환경 인증 공급업체(한국하우톤, 입시화학) 3사에 대한 에코파트너십 인증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현대제철 에코파트너십은 친환경 구

매에 기여한 우수 중소 협력사에 수여하는 인증 제도로, 정부의 환경 정책에 동참하고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마련됐다.

에코파트너십 인증업체는 친환경 우수 협력사를 인증하는 인증패 및 현판을 받으며, 업체 정기 평가 시 가점 적용, 장기 공급권 부여 등의 혜택도 받는다. 내년부터는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국한하지 않고 에너지 원단위 저감, 효율성 및 내구성 개선 등 제품 사용 가치 증대에 기여한 협력사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제철 기술박람회는 올해로 5년째를 맞는 행사를 국산화 확대, 우수 기술 소개, 개선·대체품 개발, 협력사 지원·육성 등 상생협력 및 소통의 창구로 매년 열리고 있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출시

실내 공간 넓어지고 편의성 강화
가솔린 9인승 6066만원부터

기아차는 11일 4세대 카니발을 기반으로 편의사양을 대폭 강화한 ‘카니발 하이리무진(사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카니발의 웅장한 볼륨감에 하이리무진의 정체성을 덧입혀 차별화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전면부는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하이루프와 프론트 범퍼가드가 적용돼 고급감을 한 차원 높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갖췄다. 측면부는 강인하고 다부진 느낌의 사이드 스텝 적용으로 디자인의 볼륨감을 더해줌과 동시에 승·하차 편의성을 높여준다.

후면부는 하이루프에 적용된 ‘대형 LED 후방 보조제동등’이 하이리무진 만의 특별함을 더하고 가시성을 높여준다. 하이리무진 전용 엘블립이 장착돼 차별화된 개성을 완성시켰다.

실내는 마치 프리미엄 라운지에 머무는 듯한 안락한 경험을 선사한다. 하이루프가 적용돼 카니발 기본모델 대비 최대 291mm 높아진 헤드룸은 다른 차량에서 느낄 수 없는 넓은 실내 공간감을 제공한다.

또한 조수석 시트백에 부착된 ‘벨트인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상태를 감지해 초미세먼지 및 실내 유해가스를 정화함으로써 실내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켜준다. 1열과 2열에



기아자동차 카니발 하이리무진 실내모습.

서 사용 가능한 ‘냉·온 컵홀더’로 음료를 차갑거나 뜨겁게 보관할 수 있으며 측면면 글라스에 적용된 ‘주름식 커튼’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돋는다.

기아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 7인승과 9인승 2개 모델을 먼저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한 가솔린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G3.5 GDI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94PS(마력), 최대 토크 36.2kg f·m, 복합연비 8.7km/L(9인승 기준)의 동력성을 갖췄다.

가격은 가솔린 9인승 모델 6066만원, 가솔린 7인승 모델 6271만원이다(9인승 이상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7인승 개별소비세 3.5% 기준). 향후 기아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디젤 7인승 및 9인승 모델과 함께 가솔린 4인승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